
중앙대

포스터 세션

- 다른 팀원을 통해 **개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목표** 확인



중앙대

리플렉션

“스위프트 교재가 내용이 부족하다”

“디자인씽킹 예제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퀴즈풀이가 어려움”

“진도가 느리고, 수업의 내용의 깊이가 깊지않다.”

“만들고 싶은 앱을 만들어서 좋았다.”

“인터넷 강의가 어렵다.”

“디자인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 시간에 코딩을...”

“처음에 어려운 걸 먼저해서 사람들의 수준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방학때 수업을 참여하는 것이 힘들었다.”

“디자인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불만”

“스위프트란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었다.”

“비전공자를 위한 적절한 수업이다.”

“자신의 아이디어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Delegate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윤성관 대표가 Git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